

음악이 위로기 될 때...

예술인들이 세상이야기를 전하는 방법

평범한 이야기 모이니 특별한 힐링이 되었네



“단순한 장끼자랑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힘을 빌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 에카이엔터 예술감독 한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상의 피로를 노래로 풀고 힐링을 느꼈으면 합니다.” - POLYxxx 프로덕션 책임자 서대원

▲ 에카이엔터 예술감독 한준 (왼쪽)과 POLYxxx 프로덕션 책임자 서대원 (오른쪽)이 지난 13일 오후 기자와 만나 음악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예술문화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1인미디어’의 시대다. 아이디어가 좋고 콘텐츠가 신선하면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플랫폼이 열렸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를 신조로 내건 이들이 틈틈이 만들고 있는 영상은 첫마디가 “우리 오늘 이분 만나겠습니다.”로 시작된다. ‘VVS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개설해 도전자들과 만나고 영상을 업로드한다. 현재까지 14명의 도전자가 출연했다.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하면 그거를 누군가는 알아봐주더라.”는 이들의 말처럼 영상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노래 영상이었다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쳤을 법도 하다. 그런데 친근한 도입부에 끌려 영상을 보다 보면 영화같은 화면이나 화질에 한번, 재치 있는 영상 편집에 두번 시선을 뺏긴다. 그러다가 간단한 인터뷰가 나오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나온다. 마지막에 참여자가 직접 선곡한 노래까지 듣고 나면 영상 제작 취지가 궁금해진다.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려고 나온 ‘장끼자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설핏 들기 때문이다.

그 생각의 흐름을 안고 기자는 지난 13일 오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음악과 영상에 담아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서대원 (86년생)씨와 한준 (87년생)씨를 만났다. 그들

의 특별한 ‘재능기부’ 스토리를 좀더 깊이 들여보았다.

‘VVS(Vision Voice Studio) 음악 프로젝트’는 ‘나이, 성별, 민족 제한 없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되는 숨은 고수 찾기 프로젝트’를 표방한다. 3월에 도전자 모집 공지가 나간 후 ‘취지가 너무 좋다’는 연락이 쏟아지며 신청자가 줄을 이었다. 첫 도전자들 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영상 제작까지 마친 다음 3월 25일에 ‘제 1기 도전자 영상’을 업로드하며 시작을 알렸다.

“‘VVS’ 음악 프로젝트라고 하여 대단히 거창한 건 아닙니다. 영상과 음악을 결합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도전자들을 만나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꿈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해요.”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지 않은 건, 사그라들었던 그제날의 열정... 솔직한 감정들이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중에는 생업을 위해 어릴 적 꿈을 접은 사람들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안해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물하기 위해 참가한 도전자도 있다. 공부와 진로를 고민하는 고중생

이 있었고 또 한 아이의 엄마로 팽이처럼 돌아치는 일상을 살다가 문득 육아에만 빠져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아 용기 내 신청을 보냈다는 96년생 애기엄마도 있다... 최연소 참가자인 17살에서 39살까지 각 연령대를 아우르는 각자의 사연이 전파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VVS’라는 채널이 감정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매개체인 음악을 통해 평소 낮장지러워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영상을 통해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되어주는 셈이다.

“작은 도전이었지만 삶에 대한 활력을 되찾았다는 후거나 도전자들을 보면서, 일상에 지쳐 있고 살았던 열정과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보면서 저희도 힘을 얻습니다. 신청을 보내고 기다리고 참여하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말해주는 도전자들 덕분에 영상을 찍고 자막을 넣고 후기작업을 진행하는 긴긴 시간이 저희에게도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도 이게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VVS’는 공의 프로젝트다.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며 의기투합한 서대원씨

와 한준씨는 본인들의 재능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재능기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이들이 음악과 영상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서대원씨는 중국의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의 영상 촬영에 다수 참여하며 립지를 다진 영상 전문가이다. 한준씨 역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가수 양성하고 음반 제작에도 능한 뮤지션이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 각자가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뭉친 팀 (7명)은 본업외에 대량의 시간과 정력을 들여 공익행사인 ‘VVS’ 영상을 찍는 한편 ‘VVS’ 버스킹 (길거리 공연) 도 꾸준히 이어가며 그야말로 재능 나눔을 실천중이다.

‘VVS’ 프로젝트가 현지인에 국한된다면 ‘VVS’ 버스킹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왕흥도시로 급부상중인 연길의 관광 열기에 힘입어 연변에 러행 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짝어 올리는 영상들이 여러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고향 문화를 알리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점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정성들여 하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재밌어요.”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신청자들의 사연을 찍으면서 제가 되려 감촉을 받을 때도 많아요. 행복과 치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제가 되려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 작은 힐링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음악적 시너지이자 저희가 일하는 보람이예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이들의 다양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보고 싶은 콘텐츠’를 지향한다. 인터뷰가 끝나자 다시 작업실로 직행해 후기작업을 마쳐 해야 된다고 발길을 재촉했다. 그래도 “즐겁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 김가혜 김영화 기자



▲ 지난 5월 4일, 연길공항에서 또 한차례의 ‘VVS’ 버스킹 행사를 성료하고 기념사진을 남긴 팀원들. 관객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다는 기분으로 현장을 찾는다. 음악으로 하나 되어 일상 속 따스함을 나누는 소박한 행복이 한번 또 한번의 공익 공연을 이어가는 이유다.

김광룡 작사 가요 콘서트 연길서

5월 16일, 김광룡 작사 가요 콘서트가 연길시 황관훈레칭 7층 홀에서 펼쳐지면서 연변가사협회 회장 김광룡이 창작한, 생활적인 분위기가 다분한 가요들이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다.

연변가사협회 회장인 김광룡은 20여년전부터 가사 창작에 정진해 오면서 150여수에 달하는 가사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김광룡은 특히 기성 작곡 작품에 배사를 하는 재주가 있어서 이미 완성된 곡에 가사를 붙여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년에 와서는 자사외에 작곡 작품도 여러 수 내놓았는데 그중에는 주급 가요 공모 활동에서 수상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2년전에 선보인 가요 〈청춘은 봄날〉은 현재 대중 애창가요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2005년부터 연길시가사협회 회장, 연변음악가협회 가사창작학회 회장, 연변가사협회 법인대표 겸 회장 등 여러가지 직무들을 역임해온 김광룡은 해마다 다채로운 문예활동과 다종다양한 협회 창작활동을 활발히 조직하면서 연변가사협회의 발전과 연변가사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연변문련 전임 부주석이며 연변음악가협회 명예주석인 류영근은 콘서트 축사에서 금방 정년을 맞아 제 2인생의 첫발자국을 내디딘 김광룡



▲ 연변가사협회 회장 김광룡

회장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이 작사, 작곡한 음악작품을 전시하게 된 것은 가사협회의 큰 행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음악계의 자랑이기도 하다고 강조, 김광룡 회장이 향후 모든 정력을 연변가사협회, 나아가 연변음악을 위한 사업에 몰부고 가사 창작에서 보다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했다.

답사발언에서 김광룡은 “가사 창작은 내 삶의 배터리”라고 하면서 몸은 비록 정년을 맞이하였지만 연변가사협회의 법인대표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회원들을 이끌고 숭선수범하면서 대중들이 즐기고 애창하는 가요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으로 연변 음악예술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임을 밝혔다. / 안상근 김파 기자



▲ 콘서트 무대

왕청 16세 소년 상모춤 CCTV 무대에 올라



최근 왕청현 소년 조호연이 CCTV ‘비상 6+1’ 프로에서 30미터 길이의 채색띠 두갈래를 60초간 눈을 가리고 돌리는 상모춤 동영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조호연은 올해 16세인데 왕청현 직업기술 고종 2학년 학생이다. 만 3살 때 어머니 리정의 손에 이끌려 비보잉을 접한 후 또다시 새로운 춤인 상모춤을 시도하면서 상모춤과 인연을 맺은 지 여인 13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어린시절 상모 돌리기, 몸 뒤집기 등 기본기를 익히고 일주일에는 2~3번 무용학교를 다녔다. 매일 방과후 숙제를 마치고 나면 그가 가장 즐겨했지만 또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훈련시간이었다.

리정은 상모춤을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자신의 재능과 후천적으로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은 아이가 춤을 추다가 정수리가 찢어졌는데 가제로 상처를 싸맨 후 연습을 계속했

다. 또 한번은 하나의 스핀 기교를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땅바닥에 넘어졌다...” 아들이 한번 또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리정은 가슴이 아팠지만 조호연은 한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으며 땀투성이가 되어 땀없이 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상모춤은 공연 난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기교가 수요되기에 공연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연 방법을 연구해야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눈 가리고 추는 상모춤은 더구나 난도가 높아서 몇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무용수는 목의 힘과 호흡의 관성을 리용하여 머리를 흔들어야 상모에 달린 채색띠가 춤동작에 따라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

이 프로그립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종목 조선족농악무 (상모춤)의 대표적인 전승자이며 ‘최장 상모춤 채색띠 32미터’ 기네스북에 오른 김명준은 조호연의 공연은 난도가 매우 높으면서 눈을 가리고 도약점을 찾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초가 있어야 하며 게다가 상모춤의 전통 채색띠는 보통 12미터인데 반해 조호연의 채색띠는 30미터나 된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미래에 대해 조호연은 무용수로서 무대에 서야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문적인 상모춤선생님이 되어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 왕청의 상모춤을 알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